

전북특별법 특례 대응 총력 대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호응'

심민 임실군수 "미래 임실 성장을 주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

심민 임실군수가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미래 성장을 이끌 특례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심 군수는 전북특별법 특례 대응보고회를 갖고, 특례 중 임실군에 적용 가능한 특례 4대 분야 24개 사업 중 민선 8기 역점현안과 연계 가능한 핵심 특례사업 등을 집중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특례별 기대효과와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군 적용 계획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주요 핵심사업 관련 특례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등 6건이 보고됐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저지중 짓소를 확대 보급하

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통해 고품질 원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치즈 유제품 생산 및 기반 등을 확충하여 임실치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오수면 일원에 세계경관테마랜드 조성 및 애견호텔(100실), 반려산업 단지 조성 등 반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지원 특례를 적극 활용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옥정호에 민간 개발 사업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질라인 등을 설치하고, 생태탐방선 운행 및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적극 협업해 임실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임실, 특별한 임실'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더 새롭고 특별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특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군 특례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미래 임실의 성장을 주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 군수는 전북특별법 특례 대응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역점현안과 연계 가능한 핵심 특례사업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순창군, 군비 19억원 투입... 농가 당 최대 3,450만원까지

순창군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비 19억원을 투입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관내 전체 320개 마을방문 및 군정 설명회에서 수렴한 농민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농기계 72대 15억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는 콤팩트 11대, 승용이앙기 22대, 트랙터 58대 총 91대로, 농가 당 1,200만원에서 최대 3,450만원까지 농기계 구입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군은 올해부터 트랙터 지원 대상을 기존 벼 재배 농가에서 일반 경작 농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경작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기에 영농을 실현하여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상자 외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원받은 농기계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형농기계 구매 지원을 통해 농기계 구입 및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 개최

I ♥ MY Friend' 진행

임실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아가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뒀 2024년도 학교폭력 예방 I ♥ MY Friend'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임실군청, 임실경찰서,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50여 명의 지도자가 참여해 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1,200여 명 청소년에게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은 누구나 학교폭력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학교폭력 out, 청소년유해환경 out'을 위한 피켓, 현수막, 홍보 책자를 배포했으며, 아침을 굶고 다니는 청소년을 위한 간식 제공은 청소년과 함께한다는 건강한 마음 전달'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임실군이 2024년도 학교폭력예방 I ♥ MY Friend'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I ♥ MY Friend'란 주제로 친구와의 사랑, 우정, 신뢰 등 유연한 접근은 청소년기 특성상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소원해지고 있는 요즘 등교하는 시간을 통하여 친구와의 순인사, 지도자와 약속 등의 퍼포먼스는 자신과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취지가 포함됐다.

은 "신학기가 되어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응원에 주어 기운이 난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산업 발전 MOU

남원시는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관 콘텐츠 교류 및 협력 △전시·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의 상호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및 인프라 활용 △홍보 협력 및 사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두 기관이 협력해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이어지는 남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예정위, 14일부터 추경예산 심사 돌입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봉섭)는 14일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8억 대비 463억 원을 증액한 1조 381억 원으로, 대학 협력 지원사업과 서남대학교 환경 정비 사업, 합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빈집 매입·리모델링,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시민 편의와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한의 치매 예방사업 추진

남원시가 올해부터 선제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한의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경도인지장애자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아직 치매는 아닌 치매 전 단계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남원시는 이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한 한의학 치료를 접목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를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최근 1년 이내에 경도인지장애자 진단을 받은 어르신 50명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내용은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의 치매 변증별 한약 및 침구치료비 본인부담금이며 1인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7일, 남원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거쳐 사업운영 협력 방안 및 지정 한의원을 구체화했으며, 오는 13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최대 300만원 지원

순창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군 관할 구역 안의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로, 농작물 피해면적 및 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3,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60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보상

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존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읍·면에서 현장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